

중앙일보 2014년 9월 26일 3면

건축가 김광수·송재호·유석연씨

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작가에

오는 9월 5일 개막하는 제9회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작가로 김광수(37·이대 건축학과 교수·㉠)·송재호(41·한양대 건축과 겸임교수·㉡)·유석연(35·홍대 건축대 초빙교수·㉢)씨가 뽑혔다. 한국관 커미셔너인 정기용(59·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 교수)씨는 지난 24일 한국문예진흥원 회의실에서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"한국 현대 건축이 세계로 나서는 발판이 될 이번 건축전에 세 작가는 '방의 도시'라는 한국관 전시 주제를 공동 작업으로 선보인다"고 설명했다.

정씨는 또 "올 건축전의 전시 총감독인 커트 포스터에게 김현·최문규·황두진씨 등 젊은 건축가 일곱명을 전체 주제관이 추천해 한국의 젊은 건축가들 실력을 국제 건축계에 알리는 통로를 마련했다"고 밝혔다.

정재숙 기자 johanal@joongang.co.kr

